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김민옥

안녕하세요. 1학기동안 캐나다 밴쿠버 Langara College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수기가 위 학교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수업

- 교환학생 가시는 분이라면 LEAP(Langara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코스를 듣게 되실 겁니다. level 3부터 level 8까지 있고요. 반 배치고사를 통해 반이 배정됩니다.

- 배치고사 : reading, writing, speaking 세 가지 영역을 치릅니다. 시험 전에 담당자가 공지해주겠지만, reading은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풀면 됩니다. 모르면 찍는 것보다 낫기는 게 낫습니다. writing은 토플 writing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speaking은 학생 3~4명 정도 한조로 이루고 조마다 종이 한 장 줍니다. 거기에 질문 여러 개 적혀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조원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 말하고 선생님 3~4명이 돌아가면서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대화 듣고 채점합니다.

- 참고로 저는 level 3에 배정되었고 저와 함께 같이 갔던 학생들 중에 level 5에 배정된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첫 날, 다시 한 번 시험 보는데, 이 학생이 적정 레벨에 반배치가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므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간 : 한 session당 7주간 수업이 진행되고,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이라면 총 두 session을 듣게 됩니다. session 사이에 약 열흘간의 휴식이 있습니다.

- 반 구성 : 한 반에 학생 17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leap 3 때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두 명, 일본인 두 명, 나머지 중국인이었습니다. leap 4에서도 역시 한국인 두 명, 일본인 두 명, 인도네시아인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중국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명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쉽게도 native speaker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수업 방식 : 하루 4시간 수업(level에 따라 오전반 08:30~12:20, 오후반 12:30~16:20)이고, 과제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조파서 discussion 자주 하는데, 쑥스럽다고 말 안하고 있으면 본인 손해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국어가 다르니까 서로 영어 발음이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본인도 자주 되물지만, 상대방이 한 번 두 번 되물으면 ‘내 발음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 위축되기도 했는데, 자신감 갖고 그냥 말하세요. 특정 주제가 주차별로 주제 정해져 있고(health, food, superstitions, relationship 이런 식으로), 각 session에서 프리젠테이션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인가 4주차부터 주마다 reading, listening, writing 시험 봅니다. 마지막 final exam 역시 reading, listening, writing 시험 봅니다.

- 태도, 과제, 테스트, 프리젠테이션, 기말고사 등 모든 점수를 합하여 70%가 넘으면 pass, 넘지 못하면 fail입니다. 패스하면 위의 레벨로 반 배정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같은 레벨의 session을 한 번 더 듣습니다. 거기서 70%를 넘지 못했다고 해도, 본교에서 점수 환산했을 때 F학점만 아니면 학점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수험공부나 아니면 토익, 토플 뽕세게 준비해보셨다면, 거기서 내주는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 그리고 항공편 예약하기 전에 수업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길 추천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www.langara.ba.ca에서 search에 "leap" 치시면 leap 코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홈스테이

- 가장 걱정되고 기대되는 부분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밴쿠버에는 여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라 어느 가족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저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해서 홈스테이 관련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홈스테이 가족 부부(Margaret, Dave)의 경우는 둘 다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Margaret은 부모님이 포르투갈 출신이고, Dave는 잉글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녀 1남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중국인 고등학생(Edwin) sweet mate 한 명 있었습니다. 집은 3층 집이었는데 3층은 가족들 방(3층은 올라가 본적이 없었습니다), 2층은 거실과 부엌, Dave 작업실, 그리고 1층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제방, Edwin방, 화장실, 부엌으로 되어있었고 부엌에는 저희만 쓰는 냉장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 크게 홈스테이 가족에 대한 애로사항 세 가지가 있었고, Edwin과의 애로사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Edwin과의 경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거공간을 공동으로 썼는데,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나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 등 모두 저 혼자 치웠습니다. 지저분해도 그냥 손 안대고 기다리다가 결국 못 참고 제가 치웠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그렇게 하고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거 다 했으니, 이제 너 차례다’ 하고서 서로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가족과의 경우는 뭔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아 문화적 차이로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겠다고, 그래 내가 참자.’ 뭐 이런 식으로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막상 요구사항이 있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일본친구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은 줄로만 압니다. 또한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서 상담해 봐도 가족한테 직접 얘기해보라고 권유합니다.

- 홈스테이 비 지불 방식은 하룻밤 묶는 데에 25달러입니다. 9, 10, 11월은 한 달 모두 지내니까 달마다 750불씩 지불했습니다. 출국 전에 지불한 두 달 요금은 그쪽 홈스테이 오피스에서 호스트로 직접 지불해줬습니다. 8월 달은 8월 29일부터 지냈으니깐 29일, 30일, 31일 3일 묶어서 75달러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에도 지낼 날짜만 계산해서 지불했습니다.

3. 자유 시간

- 거의 매일 커뮤니티 센터 가서 운동했었는데요, 회원가입비 4달러에 fitness gym 3개월 등록하는데 100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했습니다. 아마 호스트한테 물어보면 집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이름이나 위치 알려주실 겁니다.

- 저의 경우 집에서는 가족과 대화할 일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애가 셋이나(9살, 11살, 13살) 되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바빴더군요. 아빠는 일하고 저녁시간에 들어오고요. 가끔 저녁 먹으면서 대화하다가 식사 후에도 두 시간 넘게 얘기한적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 거기서 만난 친구 통해서 Langara College 내에 있는 Japanese Society Club을 알게 되어서, 원래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친구들도 사귄 겸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 같은 교환학생이나 외국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native speaker를 만나고 싶으시면, club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클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클럽에서 두 세 명 정도 현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거나 특히 여행 기간 동안 언어 사용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시간 내서 grammar in use랑 발음 공부했습니다. 현지에 있으니까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4. 돈

- 제 개인적으로 항상 염려했던 문제였습니다. 돈 아끼자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할 것도 없고 수업 외에는 영어 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통비를 아끼기로 했습니다. 일단 1 zone 1회 이용이 2.5달러인데,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 시간 내에 버스건 스카이트레인이건 1 zone 내에서 마음껏 탈수 있습니다. 1 zone monthly 패스는 80달러, 1 zone 버스티켓 10개 묶음은 21달러입니다. 아무튼 교통비 아끼려고 중고 자전거 알아보고 있는데, 호스트가 자전거 안 쓴다고 고쳐서 쓰라고 하더군요. 또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자전거 무상으로 정비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손보고, 호스트께 헬멧(없으면 벌금)도 빌리고, 원 달러 삼(학용품 구입하실 때 원 달러 삼 괜찮습니다.)에서 헤드라이트 하나사서 자전거로 통학했습니다. 비오거나 놀러갈 때 대중교통 이용할 일 있을 때는 10묶음짜리 사서 하나씩 썼습니다. 한 달에, monthly 사는 것보다 절반 이상 줄였던 것 같습니다.

- 은행 계좌 : 다른 은행은 이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제가 이용한 TD bank(초록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몇 개 있는데, TD가 여기저기 제일 많아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여권이랑 Langara College 학생증 들고 가면 학생 계좌로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계좌 만들 때랑 한 달 이용료 같은 거 있는데 학생 계좌라서 무료로 만들고 이용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5번 까지 TD ATM에서 무료로 인출하는 것과 상점이나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인출 횟수랑 카드 결제 횟수 합쳐서 25번 넘으면 수수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소 3개월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찍 계좌 열어야 합니다. 계좌 열고 3개월 미만 이용 후, 닫으려고 하면 15불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한 5일 모자라서 15불 지불하고 계좌 닫았습니다.

- 그리고 저는 은행에서 처음에 check 수표를 안 받아서 홈스테이 비 지불할 때 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큰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니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비자카드로 TD뱅크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이미 해외송금 다 받은 뒤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환은행에서 발급 받은 비자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오기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제 외환 계좌에 이체 해주면 거기서 돈 인출해서 썼습니다. 근데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한 것이라서 실제로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무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여행자 보험

- 아마 BC주 의료보험에 대해서 공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출국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계약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학생들도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왔는데 계약 금액이 다 제 각각이었습니다. 아마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가 갖고 온 걸로는 제한적이고, 모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개인 의료보험 안내서입니다(한글 버전도 받아온 줄 알았는데 영문버전 밖에 없네요.).

<Your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medical insurance you have now is very limited. A good insurance policy has \$2,000,000 CAD coverage. Your current medical insurance may NOT pay for some or all medical, hospital, or other health care services. The IE Office would recommend that you buy additional private medical insurance. If you do not purchase more medical insurance, you will be responsible for paying the cost of health care services and items you receive which are not covered by you current medical insurance. Note : Hospital costs alone can be over \$3,000 per day in British Columbia.

If you want to buy more private medical insurance, please come to the IE Office.

이 보험 드는 금액이 기억이 한 달에 \$35인가 \$50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들지 말지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료보험을 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드는 여행자 보험은 굳이 안하시고 가셔도 거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실 거면 보장금액 잘 확인해보세요.

- 하지만 분실물에 관한 여행자 보험은 계약하실 거라면 국내에서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쓰던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는데 잠깐 사이에 누가 집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좀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전자제품이고 돈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집어갔던 것 같습니다. 클래스 메이트 중의 한 명도 집에 도둑 들어서 노트북이랑 현금이랑 돈 되는 건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분실물 보장해주는 여행자 보험에 경우 보상내역에 해당 물품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제가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핸드폰이 목록에 없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여행

- 휘슬러, 카필라노, 빅토리아 아일랜드 같은 관광지는 2009년 여름에 단기어학연수에 참여했을 때 가봤습니다. 휘슬러와 카필라노는 summer program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갔었습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ok여행사 통해서 당일로 갔었습니다.

- 이번 파견기간에 록키마운틴을 가려했지만, 록키마운틴 포기하고 열흘 정도 쉬는 기간에 포틀랜드에 있던 친구와 함께 미국 서부여행 갔습니다. 먼저 암트랙 타고 밴쿠버에서 포틀랜드까지 갔습니다(8시간 소요). 그레이 하운드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트랙이나 그레이 하운드 이용해서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가실 때, 미화로 \$8 필요합니다(무슨 비자 뭐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현금으로 하실 거면 딱 \$8 맞추세요. 거스름 돈 없다고 합니다. 카드로도 결제 되요. 그리고 국경 심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기차 타기 전에 검사하는데 엄청 엄격하게 했습니다. 문서에 미국에 가서 지낼 주소 적어야 하니 미리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레이 하운드는 모르겠는데, 암트랙 예약할 때 일찍 하면 조금 더 싼 것 같습니다. 요일에 따라 가격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쇼핑하러 시애틀 가는 사람 보니까 그냥 일반인이 싸게 받고 하는 카풀 같은 것도 이용하던데, 저는 안 해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네요.

- 아무튼 포틀랜드에 도착한 후에 포틀랜드에서 LA, LA에서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포틀랜드로 총 비행기 3번 탔는데 제가 항공사 이용해서 210달러 내로 해결했습니다. 물론 비행기 이용할 때 당연하겠지만, 특히 저가항공사 이용하실 때 수하물 규정 꼼꼼히 살펴보세요. 위탁수하물 하나만 있어도 몇 십 달러씩 내야하고 기내 수하물이라도 규정규격 넘으면 돈 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과 밴쿠버 왕복 시 에어캐나다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출국할 때는 위탁수하물이 23kg 두 개였는데, 귀국 할 때는 위탁수하물 하나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록키마운틴 가실 거면, 조금 일찍 가서서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7. 기타

- 핸드폰 : 저는 mobilicity 통신사 이용했는데, 운 좋게 기계랑 유심칩 모두 공짜로 받았습니다. 통신요금만 세 달 플랜으로 텍스 포함해서 \$75달러 주고 했습니다. 밴쿠버 지역 내에서는 시간대 상관없이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이었습니다. 근데 mobilicity 비추합니다. 싸게 이용했지만 잘 안 터져요. 다른 통신사는 이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있으시면 카톡 같은 것 이용하셔도 되고요, 대신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은 감수해야겠지요.

- 쇼핑 : 일단 물건을 사든 밥을 사먹든 무조건 세금 12% 붙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거기다 팁까지 주죠. 저는 가끔 팁 안주거나 조금 줬습니다. 아무튼 쇼핑 하실 때 싸보인다고 막 사지 마시고 환율이랑 세금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구입하세요. 싸보여도 막상 계산하면 한국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8. 사이트

www.langara.bc.ca - Langara College

www.translink.ca/ - 밴쿠버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

cafe.daum.net/vanstudents - 다음 카페 우밴유

www.happykorea.ca - 캐나다 한인 포털 사이트

www.amtrack.com - 암트랙, 그레이 하운드

이렇게 수확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새록새록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준비할 때의 마음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놀다 오세요.